

“가맹점 아닌 ‘사용자 중심’...결제 패러다임 바꿀 것”

“기존 가맹점 중심의 결제시스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내 결제·뱅크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세진 하렉스인포텍 결제인프라연구소장이 ‘사용자 중심 결제’로 결제 시대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30년 이상 결제·뱅크 분야에 근무해 온 그는 최근 하렉스인포텍에 합류, ‘결제인프라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 결제·뱅크 분야 ‘통’으로 알려진 그의 행보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사용자중심 결제는 기존 결제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콘셉트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주가 고객의 카드를 건네받고 매장에 설치한 결제단말기를 이용, 뱅사를 통해 결제승인을 받는 구조다.

반면에 사용자 중심 결제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가맹점에 전달하지 않고 가맹점주로부터 거래금액을 전달받아 고객이 직접 결제승인을 받는다.

박 소장은 “가맹점이 사용자에게 거래금액을 전달하면 사용자는 상당한 가맹점진 거래금액

박세진 하렉스인포텍 결제인프라연구소장
UB플랫폼 사용...뱅크·PG사 이용 안해
서비스 선택 쉽고 업그레이드도 용이
아프리카 진출 눈앞...글로벌 시장 도전

이 정확한지 체크한 뒤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며 “이 결과는 가맹점주에게도 알려주는데 가맹점주는 데시보드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중심의 터미널이 고객 중심으로 바뀌는 셈이다. 결제기가 스마트폰에 있어 기존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결제 과정에 뱅이나 PG(전자결제)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사용자 중심 결제방식이 사용자에게 주는 이익도 크다. 대표적 예로 하렉스인포텍이 사용자 중심 결제를 위해 개발한 ‘UB플랫폼’은 일종의 공유 플랫폼이다. 거래가 일어나면 이 플랫폼 내에 개인 거래 데이터가 쌓인다. 쌓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쉽게 만든다.

그는 “고객이 서비스제공기관과 온라인으로 연결돼 현장에서 즉시 쿠폰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며 “고객은 자기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포인트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여러 사업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사업 자별로 찾아가 사용해야 했다. 사용자 중심 결제

는 수익이 생기면 일정부분을 회원에게 제공한다. 사용 시점에 공유 포인트를 적립하는 식이다. 사업자별 포인트 구분이 없어지고 사용자 중심으로 포인트가 모이게 된다.

결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용이하다. 사용자 중심 결제는 필요하면 고객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사용자 중심 결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중이다.

박 소장은 “울산 지역에 페달이라는 O20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 가맹점에 현장에서 POS 역할을 하는 UB결제기(계산기)를 공급해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개발이 완료됐으며 소규모 검증에 이어 본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마켓서비스가 내달 10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시하는 앱 ‘씨장(See장)’에도 하렉스인포텍의 ‘UB결제기’와 ‘복합 결제’ 기능이 탑재된다. UB결제기터로 물건 값을 계산하고 거래금액을 고객에게 전달하면 고객의 앱 화면에

는 지불해야 할 금액이 나타나며 고객이 승인하면 결제와 함께 포인트까지 쌓인다. 또 ‘복합 결제’는 모바일 상품권, 공공결제, 지역화폐, 간편결제, 포인트, 쿠폰, 카드, 현금 등을 혼합해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외 시장 공략 청사진도 있다.

그는 “UB페이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 서비스가 확산되면 비자 마스터카드 새로운 글로벌 결제 스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가 내달 아프리카에 사업 론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렉스인포텍은 아프리카에 서비스를 위한 UB결제기터 1억대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박 소장은 앞으로의 결제환경이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는 “상위 서비스가 나오면 하위 서비스는 빠르게 소멸한다”며 “일부 시행착오 있었지만 상위 서비스가 괜찮다는 콘셉트가 공유되면 인프라는 쉽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그리드위즈가 제주도, 한국전력공사와 ‘제주도 충전기 활용 플러스 수요반응(DR) 시범사업’을 함께한다. 오른쪽부터 김구현 그리드위즈 대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경윤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장.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전기차 충전’에 활용 그리드위즈·제주도·한전, DR 시범사업 협약 (수요반응)

전력소비 증가로 과잉공급 해소 전망

그리드위즈(대표 김구현)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제주도 충전기 활용 플러스 수요반응(DR)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플러스 DR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한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생산되는 전기 출력을 제한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혜택을 줘 전력 수요를 늘리는 제도다. 즉, 전력 공급이 넘칠 때 전력 소비를 증가시켜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드위즈와 제주도, 한전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도 충전기 활용 플러스 DR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와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제주도에서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생산되는 잉여전

력을 전기차 충전 용도로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제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87대를 활용한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도, 제주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그리드위즈는 도 구축 충전기를 DR자원으로 등록한다. 임·낙찰, 참여자 모집·관리, 인센티브 지급·정산금 관리 등 서비스 사업자 역할을 수행한다. 자사 운영플랫폼과 스카이블루 앱을 활용해 고객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드위즈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의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 DR 시범 사업”이라며 “유연성 자원으로써 전기차 가치를 국내 수요자 원거리시장에서 확신하고 검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아드반테스트, ‘TAS7400TS’ 고주파 고해상도 옵션 지원

〈테라헤르츠 광학 샘플링 분석 시스템〉

광대역 일괄 측정...비용·공간 절약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인 아드반테스트는 테라헤르츠 광학 샘플링 분석 시스템 ‘TAS7400TS’의 고주파 고해상도 옵션을 발표했다.

고주파 고해상도 옵션은 비온드5G·6G의 차세대 통신 기술과 첨단전자지원시스템(A-DAS)에 사용되는 밀리미터파 레이더 기술에 필수적인 전파 흡수체와 기관 재료 등 고주파 특성 평가에서 조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줄이는 측정 방법을 지원한다.

밀리미터파·고주파 영역에서 각종 재료의 전달특성(투과율, 반사율), 복소 유전율 등 특성 파악은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VNA)가 지금까지



아드반테스트의 ‘TAS7400TS’

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대역 특성 파악이 중요함에 따라 VNA는 주파수대역별 설정과 교정 시간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드반테스트의 테라헤르츠 광학 샘플링 시스템은 펄스전자장치를 활용해 광대역에서 일괄 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더 작은 크기의 광학 샘플링 시스템(측정 환경)으로 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비용과 공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핑 측정 옵션을 사용해 표면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이외 새로운 옵션의 주파수 해상도와 스캔 속도는 이전 제품에 비해 5배 빨라져 신소재의 고주파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JASIS에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MWE 2021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필름형 투명LED로 문자·영상” 창성시트 ‘스마트가로등’ 선보

창성시트(대표 김현상·백승준)는 기존 길거리 가로등에 다양한 정보를 표현하는 스마트 가로등을 선보였다. 회사는 필름형 투명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스마트 가로등을 제작했다.

회사는 어두운 길만 밝혀주던 가로등 본래 기능이 단문자 또는 날씨에 따라 낙엽이나 눈·꽃영상을 전달하는 하이브리드형 제품을 선보이는 등 필름형 투명 LED 디스플레이 응용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창성시트는 고성능 보호필름, 기능성 필름, 투명



창성시트가 경기도 화성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했다. 필름형 투명 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단문자 또는 영상을 전달할 수 있다.

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백화점, 전시장, 대학교, 해외 공항, 상업시설 등 홍보용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곳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제3차 CCUS · 탄소자원화/청정연료 기술개발과 상용화 및 사업모델 세미나

(※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 진행)

■ 행사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 15일(금) 09:50~17:10

■ 장소 : KIEI 세미나실 (서울 구로동)

■ 주최 : 산업교육연구소 <https://www.kiei.com>

■ 교육비 : 교재 / File / 중식 / VAT 포함
- 1일교육 : 27만 5천원 / 2일교육 : 48만 4천원

■ 참가신청방법

① 인터넷신청(www.kiei.com) →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 접수완료

② 전화신청(02-2025-1333) 서속화 차장 → 교육비 입금 (신한은행 110-053-876758 예금주 : 산업교육연구소) → 접수완료

* 프로그램의 주제 및 스케줄은 연사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세미나개강 5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취소요청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등록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10월 14일 (목)		10월 15일 (금)	
9:50 ~ 10:30	■ 정부의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추진현황 및 계획 소개(로드맵)	09:50 ~ 10:30	■ 글로벌 바이오메스 연료시장 현황 및 전망과 주요이슈 - 글로벌 바이오메스 연료시장의 현황 → W/P/PPK/S시장 동향 - 국내 전력시장 동향 → 글로벌 바이오메스 연료시장의 이슈 및 전망
10:40 ~ 11:20	■ CCUS연구 기술개발 현황과 실증사례 및 해결과제 - 발전 부문에서의CO2감축 수단 - CO2활용기술 개발현황	10:40 ~ 11:20	■ 바이오메스 연소기술 및 전소 발전현황
11:30 ~ 12:10	■ CO2를 활용한 청정합성연료 연구, 기술개발 동향과 발전전망 및 기대효과	11:30 ~ 12:10	■ 메탄올을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과 상용화 및 사업모델
12:20 ~ 13:00	■ CO2를 활용한 화학소재분야 제조/공정 연구, 기술개발동향과 발전전망 및 기대효과 - CO2활용 기술동향 - 국내외 기술개발 소개 및 발전 전망	12:20 ~ 13:00	■ 미이용 산림을 활용한 바이오메스 생산기술과 상용화 및 사업모델
중식			
14:00 ~ 14:40	■ CO2포집기술(KIERSOL)의 상업화 및 발전전망 - 화력발전, 제철, 시멘트 및 석유화학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용 - CCUS비즈니스 모델 제안	14:00 ~ 14:40	■ 메탄올을 활용한 고품질 산업용 오일 생산기술과 상용화 및 사업모델 - 메탄올을 연속적으로 열분해 플랜트를 통하여 고품질 오일로 전환하는 시스텝개발 성공
14:50 ~ 15:30	■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기체 분리막을 활용한 이산화탄소포집·활용(CCU)실증사례 - 가전제품 내외장재 원료인 폴리카보네이트(PLC) - 드라이아이스와 반도체 세정용 액화탄산가스	14:50 ~ 15:30	■ CO2 수소화에 의한 화학제품/원료 생산 제조/공정 연구, 기술개발 동향과 발전전망 및 기대효과
15:40 ~ 16:20	■ 바이오연료의 역할과 국내 액체 바이오연료의 개발 보급현황 및 전망 - 바이오연료의 종류 및 특성 - 기존 바이오연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 바이오메스의 열화학적 전환 기술개발 동향	15:40 ~ 16:20	■ 임모니아 분해를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과 상용화 및 사업모델
16:30 ~ 17:10	■ 플라스마를 이용한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및 CCU실증사례와 사업전략 - CCU 산업 동향 및 필요성 - 플라스마 활용 CCU 기술소개 및 실증사례 - 플라스마 활용 CCU 상용화 추진현황 및 산업별 적용방안	16:30 ~ 17:10	■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현황 및 전망과 적용기술 - 국내외 바이오가스 플랜트 현황 - 바이오가스발전 사업과 전망 - 바이오가스발전 적용기술 - 추진사업화 사례